

경관해석의 성경적 틀*

Biblical Framework for Landscape Interpretation

김 농 오 (NongOh Kim)**

이 웅 규 (WoongKyu Lee)***

이 창 훈 (ChangHun Lee)(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Phenomenological approaches and old-age ideas in landscape analysis are human microcosm concepts that have been widely recognized in the East in the past. This is a much more human-centered landscape analysis than the traditional mechanistic landscape analysis, which has identified humans and nature as separate entities. At the same time, it is much more like a biblical interpretation than the conventional dualistic philosophy of separating nature from God. However, it is easy to overlook the value of the natural landscape itself, which was good to see even before human creation, when it came to excessive human-centered landscape analysis. It was pointed out that these living creatures [Soul, 靈] could commit the error of landscape analysis in the recognition process that humans cannot recognize or can recognize mistakes. Therefore, this paper argued that the basic framework of biblical landscape analysis discussed the value of the earth world as a model of heaven and the reality of all things from the human point of view as a 'Saving Soul'.

Key words : Christian World view, Landscape Planning, Landscape Recognition, Landscape Evaluation, Evolutionism

* 2020년 11월 20일 접수, 12월 18일 최종수정, 12월 23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제37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 학술대회(2020년 10월 31일)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국립목포대학교(Mokpo National University) 공과대학 조경학과 명예교수,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nongoh@hanmail.net

*** 백석대학교(Baekseok University) 관광학부 관광경영학과 교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학로 1, unikorea@bu.ac.kr

**** 국립목포대학교(Mokpo National University) 공과대학 조경학과 조교수,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leech4298@mokpo.ac.kr

1. 서론

진화이론은 생물학 분야뿐만 아니라 건축, 도시 및 국토계획, 지리학, 조경학 분야에도 영향을 준다. 예컨대 건축학에서는 인간거주학(ekistics)¹을 다루고, 도시계획학에서는 동적 도시(dynapolis)²나 소도읍이 거대도시(metropolis)³로 성장하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경관(landscape)의 해석에서 인간 중심 사고의 흔적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인간들의 다양한 활동이 지구상에 다채롭게 전개되었고 그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받은 것으로 가정한다면, 개발과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지구의 환경 문제가 해체 직전의 위기 상태에 도달해 있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경관 혹은 환경 보전에 관한 해결 방안 모색은 그것을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자연과 인간 사회 같은 정적인 것도 고정된 것도 아니며,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며 진보와 퇴보를 반복하고 있다. 또한, 에크보(Garret Eckbo)가 주장한 경관의 개념은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개입과 더불어 형성되는 것으로,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에 연속되는 모든 과정의 복합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이클 로리(Michael Laurie)는 경관이 갖는 그 자체의 특성이나 땅 그리고 인간의 역사적인 영향에 따라 변화하는 동적이고 자연적이며 그리고 사회적인 체계의 반영으로 보았다. 이 같은 다분히 진화론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경관해석은 자연과 인간 활동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인간을 위한 부지 선정(site selection), 디자인, 건설과 설비, 관리와 유지 등을 정당화하고, 소위 개발이라는 인간 행위와 자연 보전이라는 이율배반적인 모순을 변화라는 진화 개념으로 용인해 온 것이다(최기수, 1983: 1-12). 따라서 경관의 가치 역시, 경관평가의 주체라 볼 수 있는 인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평가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경관을 자연 그 자체로 볼 수도 있고(landscape as nature), 인간의 서식처(landscape as habitat)나 인간의 무대(landscape as artifact)로 볼 수도 있다. 또는 경관체계(landscape as system) 혹은 역사(landscape as history), 이념(landscape as ideology), 장소(landscape as place), 미(landscape as aesthetics)로 파악할 수도 있다. 또는 불완전한 교정 대상(landscape as problem)으로 볼 수도 있고 경제재(landscape as wealth)로 파악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래의 진화론적 입장을 대신할 기독교 세계관에서 바라본 성경적 경관해석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방법은 경관해석의 기존 이론을 정리 분석

1) 거주지 형태에 관한 서술 연구 및 거주지에 사는 주민과 물리·사회문화적인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일반적인 결론을 체계화한 이론을 총칭한다.

2) 그리스 도시계획가인 독시아디스(Doxiadis)가 주장한 미래 도시 개념으로, 그는 3차원의 공간에 대해 4번째 차원인 시간에 초점을 두고ダイナ믹하게 발전하는 미래 도시를 ‘기능 도시(dynapolis)’라 명명했다. 현대에 들어 도로를 따라 질서 있는 발전이 가능하도록 조성된 기능 도시를 일컫는다.

3) 다른 도시에 비해 인구가 많고 각종 기능이 밀집한 도시의 의미를 가진다. 국내에서도 경제개발 이후 이촌향도 현상의 증가로 서울 및 6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같은 곳이 인구 이동의 중심으로 가능한 상황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비평하고,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유관 성경 구절에 근거해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II. ‘경관(landscape)’에 관한 이론적 고찰

경관은 일반적으로 ‘경치’ 그리고 ‘특색이 있는 풍경 형태를 가진 일정한 지역’을 뜻한다. 경관의 영어 표현에 해당하는 ‘landscape’는 중세 고어인 ‘landscipe’에서 유래했다. 경관의 의미는 ‘일정한 지주 또는 특정 집단에 의해 소유된 지역(district)’을 의미했으나, 이후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덴마크 풍경 화가들에 의해 landscape는 전원 풍경(rural landscape)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렇듯 경관의 보편적 개념과 형식은 이러한 서구 풍경화의 발전과 동반해 진행되었고, 당대의 풍경 화가가 화폭에 담았던 상상 속의 이상적 경치는 경관의 겉모습을 지배해 온 규범이 되었다. Landscape는 처음에는 바다 경관이나 바다 그림에 대비되는 내륙의 자연 풍경 또는 풍경화를 의미했으나, 현대에 들어 지구상의 모든 자연 및 도시 경관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임승빈, 2003: 1). 경관은 일반적으로 외부의 풍경, 조망 또는 미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가시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인간에 의해 형성되는 심적 현상과 공간 해석에 의한 물리적 현상을 동시에 내포한다. 경관을 눈에 보이는 풍경이라 정의할 때, ‘보인다’의 의미가 반드시 시각적으로 비추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를 더 일반적인 어휘인 ‘지각한다’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꽃향기, 폭포의 낙수 소리 등과 같이 인체의 오관을 통해 지각되는 넓은 의미의 풍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임승빈, 2003: 2). 또한 경관은 시야를 통해 즐기는 경치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생존을 지원하는 생태적 속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경관을 통해 삶의 의미와 본질을 느끼게 하는 상징적, 철학적 속성을 지닌다(임승빈, 2003: 서문).

경관은 태초에 사람의 힘에 통제되지 않는 상태인 ‘야생(wild)’ 또는 ‘원시(primitive)’ 경관과 이와 반대의 개념인 ‘인공적(artificial)’ 또는 문화적(cultivated)’ 경관으로 구분된다. 이는 같은 시대에 공시적으로 존재하기도 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시적으로 변화하기도 하는 특징을 갖는다(황기원, 2011: 141-142). 이러한 지리학적 증거들은 장소적 사건을 형성하고, 장소 간에 발생하는 경관을 물리적 혹은 문화적 형태 등으로 구성한 지역으로 해석되기도 한다(Carl Sauer, 1963: 315-350).

한편 경관의 대표적 표출 방식인 정원(garden)⁴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설계되었다. 고대의 경우 대부분

4) 혼돈 속에서 빛과 어둠, 육지와 바다, 동식물과 인간이 차례로 생성된 구약성서의 창세기는 메소포타미아인들에게 구전되어 온 천지창조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따라서 조경사의 근원을 신화와 종교에서 찾게 된다. 원시인들은 인공적으로 언덕을 만들거나 혹은 거석을 다시 세움으로써 지구 환경에 최초로 인간의 의지들을 나타냈다. 그리고 불리한 외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울타리를 두름으로써 정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garden’의 어원은 히브리어인데, ‘gan’은 방어의 목적으로 울타리나 혹은 둘러쌈을 의미하며 ‘oden’ 혹은 ‘eden’은 즐거움이나 쾌락을 뜻한다. 정원이란 살기에 좋고 즐거운 곳이 되게끔 울타리를 두른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창세기에 묘사된 에덴동산과 같은 파라다이스의 추구는 자연환경이 불리한 곳에서 더 아름다운 정원을 낳게 했다(정영선, 1979: 11).

분 권력이나 이상향과의 관계 속에서 조성되었다. 고대 이집트 정원은 종자수집과 함께 감상을 위해 조성되었고, 그리스와 로마의 정원은 신화를 바탕으로 한 신들의 세계를 구현했다. 이슬람과 중세의 정원은 경전에 묘사된 천국의 이미지를 정원에 투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탈리아 정원들은 신화를 직접 재현하기도 했다. 결국 이 당시의 정원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자연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상을 옮겨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조정송 외 2006: 22-95). 이후 낙원과 연계된 이미지들을 구체적인 경관 형태의 하나로 인식해 풍경화 속의 자연을 기준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풍경화식 정원은 픽처레스크 미학의 우산 속에서 18-19세기를 풍미했다. 그림 같은 자연의 이미지는 경관을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경관을 구성하는 방식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배정환, 2004: 45-84). 이후 프랑스의 기하학식 정원과 영국의 픽처레스크 양식 등이 대두되어 경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산업혁명에 따른 근대의 경관 흐름은 도시화였고 이에 센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공공 영역의 도시 경관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기능적 디자인과 생태적 방향 추구가 등장했다. 근래에 들어 미니멀리즘, 해체주의, 대지예술 등의 장르가 경관을 대변한다 할 수 있으나, 추후 어떠한 다른 형태의 경관해석 방식이 나타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결국, 경관이란 것은 역사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공간형태로 인식되는 과정이다(김농오, 1989: 41-59).

III. 현대 사회 경관 인식의 변천 과정

환경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경관계획을 통해 주변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것도 문제해결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또한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경제적 가치 추구가 종래 종교적, 사상적 가치 추구를 대신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더불어 사회의 민주화, 대중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종래 귀족 중심(landscape as royal)에서 대중 중심(landscape as public)으로 분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경관평가 방법에서도 1960년대 이후 경관 자원의 보존과 개발에 따른 시각적 영향의 최소화, 레크리에이션 기회 증대, 도시 경관 향상 등 여러 측면과 관련해 고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관은 훼손에 대한 보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컨대, 아서 외(Arthur, et al, 1977)는 기존의 자연 자원의 경관미 평가기법에 관한 포괄적인 고찰을 하는 데 있어 경관평가 방법을 목록 작성(descriptive inventories), 대중 선호 모델(public preference model), 경제적 분석(economic aspects of aesthetic measurement)으로 나눈 바 있다. 또한 주비 외(Zuve, et al. 1982)의 경관분석 및 경관지각에 관한 문헌을 검토한 결과, 이들은 전문가적 판단에 의지하는 방법과 정신물리학적 방법, 인지적 방법, 개인적 경험에 의지하는 방법으로 접근 방법은 4분화하기

도 했다(임승빈, 1988: 43-51).

다니엘과 바이닝(Daniel & Vining, 1983: 39-83)은 경관의 질의 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고찰에서 생태학적 접근, 형식미학적 접근, 정신물리학적 접근, 경제학적 접근, 기호학적 접근, 다섯 가지 분류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중에서 현대에 들어 경제학적 접근이나 기호학적 접근 방법 등 경관분석 기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은 결국 인간 중심의 가치가 경관해석에 깊이 관여하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여러 학자가 경관분석의 틀을 다양한 범주로 분류했지만 경관의 내용적 틀은 크게 생태적 측면, 미적 측면, 철학적 측면,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1. 생태적 측면

경관분석에서 생태학적 접근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생태학적 분석은 여러 학자에 의해 시도되었으나 생태적 결정론을 주창한 이안 맥허그(Ian Mcharg)가 대표적이다. 이안 맥허그의 생태계획은 자연의 형성 과정을 기상, 지질, 수문, 수질, 토양, 식생, 동물 등의 요소로 잘게 나누어 조사 분석해 목록을 작성하고, 도면을 중첩시켜 분석한 정보의 종합적 매트릭스를 구하는 방법을 취한다(이명우 등, 2011: 64-72). 그러나 인간과 문화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하천과 계곡의 경관 가치를 상대적 척도로 계량화한 레오폴드(Aldo Leopold, 1969) 또한 생태학적 분석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2. 미적 측면

경관의 물리적 형식이 미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의 하나는 형식미학적 분석이다. 자연경관에서 경관의 훼손 가능성을 연구한 리튼(Litton, 1974)이 형식미학적 분석의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경관을 시각적 특성이 적은 평범한 경관, 높은 산이나 폭포 같은 독특한 지형을 지닌 지형경관, 중심이 둘러싸여 있는 위요경관, 점을 중심으로 뻗어 있는 초점경관 등으로 나누고 각 유형 상 시각 훼손 가능성이 큰 곳을 연구했다. 제이콥스와 웨이(Jacobs & Way, 1968: 2-34)는 ‘여러 형태의 경관이 토지 이용 활동을 흡수할 수 있는 정도’와 ‘토지 이용이 시각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 이들은 시각적 흡수성이 시각적 투과성과 시각적 복잡성의 함수로 나타난다고 했다(임승빈·주신하, 2008: 175-207).

미학의 상징적 측면을 기호 차원으로 분석한 학자들도 있다. 기호적 차원에서는 건축물이나 도시를 대상으로 한 접근이 주를 이뤘으며, 추후 경관 구성 요소에 관한 연구도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임승빈, 2003: 155-174). 기호의 다른 차원인 상징적 측면으로 볼 때 중세의 수도원 정원 구성은 유토피아를 상징하고자 했으며 한국, 중국, 일본의 정원은 불교 및 신선 사상과 관련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3. 철학적 측면

현대 미국의 철학자 소로(Henry David Thoreau)는 숲속에 은거해 생활한 경험을 토대로 산림의 심리적 가치를 설파한 바 있다. 소로에 이어 알도 레오폴드(Aldo Leopold)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중요한 산림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산림을 포함한 자연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 지구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임으로 인간은 자연을 훼손할 권리가 없으며, 산림은 인생의 의미도 깨우쳐 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토지 윤리라는 사상을 주도하면서 지구상의 땅과 산림을 포함하는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인간의 노력을 호소한다.

철학적 측면의 연구방법론 중 하나인 현상학적 접근방법(phenomenological approach)에서는 인간-환경이라는 전통적인 이분법을 지양하고 있다. 인간과 환경을 분리될 수 없는 단일체로 보기 때문에 인간과 환경이 어우러진 상황의 여러 가지 경험적 측면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⁵. 따라서 장소성과 비장소성, 내부성과 외부성(Edward Relph, 1979: 49), 장소 애착과 장소 혐오, 거주와 여행 등과 같은 경험 차원에서의 새로운 이분법으로 접근함으로써 정주 환경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임승빈, 1988: 46).

또한 아이켄(Aiken, 1976), 렐프(Relph, 1976), 튜안(Tuan, 1979) 등의 지리학자들이 문화적 경관 특성에 주된 관심을 두고 경관의 내재된 의미와 가치 등을 밝히고자 한 반면, 현상적 입장에서는 경관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밝히는 데 이르고 있다. 예컨대, 노베르그슐츠(C. Norberg-Schulz, 1980)는 현상적 접근을 표방한 그의 저서 『장소의 영혼(Genius Loci)』에서 자연환경의 현상을 사물(thing), 우주적 질서(cosmic order), 특성(character), 빛(light), 시간(time)의 5가지 요소로 설명한다. 이 중에서 사물과 질서는 공간적 요소, 특성과 빛은 일정한 장소의 전체적 분위기와 관련된 요소이며, 시간은 항구성 및 변화의 차원으로서 공간과 특성을 생활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노베르그슐츠는 이상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융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낭만적 경관(romantic landscape), 우주적 경관(cosmic landscape), 고전적 경관(classical landscape), 복합적 경관(complex landscape) 총 4가지 경관 유형으로 구분했으며 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낭만적 경관을 대표하는 사례로 터널 형태로 구성된 북유럽의 숲을 들 수 있다. 인간은 이러한 장소에서 다양한 자연의 힘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나무가 울창한 북유럽의 숲에서는 시야가 제한되고 제한된 시야에 의한 미시적 공간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연출되는 경관이 흡사 동화에 나오는 ‘숲속

5) 환경결정론에서 멀어질수록 자연과 관계에서 인간의 중요성은 증가하며, 그 마지막인 자유의지론에 이르면 인간의 의지에 거역하는 자연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도달하므로, 주체나 객체로 구분되는 이원론은 붕괴되고 인간과 자연은 분리되지 않은 하나가 된다고 주장했다. David Pepper, 이명우 오구균 김태경 역, 『현대환경론 :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철학적, 민중론적 이해』, 한길사, 1989, p211-213.

Table 1. Types and Features of Landscape by Norbert-Schultz

Classify	Distinction	Place Case
Romantic Landscape	Limited Field of View, Dreamlike	Nordic Forest Landscape
Cosmic Landscape	Open Field of View, Absolute	Desert Style Landscape
Classical Landscape	Harmonic of View, Friendliness	Greek Style Landscape
Complex Landscape	Combination of Romantic, Cosmic, Classical scenery	French Style Landscape Alps Style Landscape

의 난쟁이'를 만날 것 같은 느낌을 주고 공상적인 세계로 이끌어 준다는 의미에서 낭만적 경관이라고 부른다.

우주적 경관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노베르그슐츠는 사막을 언급하며 광활한 불모지와 구름 없는 넓은 하늘로 설명했다. 거시적인 규모의 경관을 경험하면 절대적인 질서에 대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특히 사막에서는 낭만적 경관처럼 개별적 장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자연의 힘을 경험하지는 못하게 된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가장 절대적인 우주적 특성을 경험하게 되며, 사막의 거주자에게는 '장소의 영혼'이 곧바로 '절대자' 혹은 '유일신'을 뜻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사막을 배경으로 탄생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고전적 경관의 대표 경관으로 그리스의 경관을 들 수 있다. 그리스의 경관은 너무 단조롭거나 너무 복잡하지도 않으며, 인간 척도에 근거한 조화로운 평형을 이루고 있다. 산, 구릉, 계곡, 분지 등의 자연 요소가 각각의 개성을 지니며 동시에 연속적으로 변화를 가지며, 전반적으로 통일성을 지닌다. 하늘은 높지만 친근하기 때문에 그리스인은 주어진 경관에서의 경험에 따라 의인화된 신을 탄생시킴으로써 자연과 인간을 연결시켰다. 그리스인은 자연에서 '난쟁이'나 '유일신'을 찾지 않고 인간 자신을 발견한다. 자신과 자연과 동등한 협력자로 여기며 자연을 친근한 보완 관계로 해석한다.

복합적 경관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기본적 경관(낭만적, 우주적, 고전적 경관)이 복합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기본 경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의 경관은 넓은 평야를 이루고 있어 사막과 비슷한 공간 특징을 지니지만, 토지가 비옥해 '비옥한 사막'으로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프랑스 경관은 우주적, 낭만적, 고전적 특성이 융합되어서 풍부한 의미를 지닌 통일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알프스 경관은 톱날 같은 윤곽과 협곡의 대비에 의해 '야성적 낭만성(wild-romantic)'을 나타낸다고 언급하고 있다(임승빈, 2003: 190-193).

최근의 현상학적 경관분석에서는 전문가의 경험적이고, 개방적 인터뷰 분류법(sorting) 및 다차원 분석(multidimensional scaling) 기법 등이 가정(home)의 여러 측면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

은 경향은 인간을 자연의 산물로 보고, 디자인을 인간보다 더 중요시하며, 디자인의 목적을 인간의 재창조에 두어 자연 없는 인간이나 인간 없는 자연을 무(無)로 파악한 에크보(Garrett Eckbo, 1969: 54)와 같은 근대 서구 조경가와 고대 동양인들의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지 않았던 자연철학과 깊은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⁶.

한편 풍수지리설은 중국에서 시도되어 한국에서 특히 발달한 사상 체계로, 경관을 살핀 후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현상학적 기법이라 할 수 있다. 풍수지리설은 토지나 경관을 이해하는 이론 체계이며 동시에 이용을 위한 기술이기도 하다.

풍수지리에서는 산세, 수계, 방위 그리고 사람의 입지가 주요 고려 대상이며 땅의 기운을 살펴보는 방법으로는 간룡법, 장풍법, 득수법, 정혈법, 좌향론, 형국론 등의 원리를 이용한다. 특히 지형의 외관을 중심으로 지기의 흐름에 의해 묘사되는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 쌍룡교구형(雙龍交媾形),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 등의 형국론은 미학적 측면과도 연결된다.

4. 경제적 측면

경관을 경제학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경제의 편익을 계산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교환게임이다.

편익 계산은 경관 또는 레크리에이션의 편익(benefit)을 화폐가치로 계산해 경관의 가치를 비교하는데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편익을 계산하는 경우, 경관 이용자들이 경관의 이용과 관련해 지불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불 용이성, 기회비용, 지출비용, 국민총생산, 부동산 가격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교환게임은 경관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가치, 즉 수자원, 지하자원, 대기 자원, 주거의 편리성, 교육의 질 등과의 상대적 중요성 또는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교환게임을 통해 제안된 상황에서 여러 인자 간 상대적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일반인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계획 과정의 목표 설정 단계에서 삶의 질의 지표를 찾아내고, 예산을 분배하며, 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장점이 있다(임승빈, 2003: 201-220).

6) 도교의 자연철학은 “원래 자연의 본질적인 통일감은 개인의 양심을 상실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다는 한 생활 방식이다. 그것은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인간 행동 그리고 인간이 인공적으로 자연과 접촉하는 공예 기술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포함한다. 또한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상식의 근원에 대한 재고찰을 필요로 한다.” 도교의 자연주의 사상은 보통 수준을 훨씬 넘어서었다. 모든 예술과 기교, 즉 인간의 모든 활동을 자연발생적 행위로 여긴다. 이는 시와 풍경화에 훌륭하게 표현된 인간 감정의 노출이고, 그 기법에는 ‘통제된 우연’, 즉 강제력과 자의식적인 의도 없이도 정확하게 읊을 것을 실행하는 매혹적인 수련이 담겨 있다.

IV. 경관계획 단계별 특성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경관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의 부분 계획으로 작성되어 왔으나, 법 제정 이후 경관계획 수립과 경관조례 작성,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경관법은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신익순, 2000: 37-47).

경관계획은 기존 경관자원의 보전과 새로운 경관을 조성하는 형성의 두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경관 보전은 경관지구 지정과 그에 따르는 법과 조례 및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한 경관관리를 통해 실현되며, 경관 형성은 주로 경관 사업과 경관협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경관계획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 해당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기본 경관계획 또는 특정 경관계획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수립하거나 모두를 동시에 수립할 수 있다. 기본 경관계획이란 경관계획의 목표를 제시하고 경관 권역, 축, 거점 등 경관 관리 단위를 설정하며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특정 경관계획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경관 유형(산림, 수변, 가로, 역사문화, 시가지 등) 혹은 특정 경관 요소(야간 경관, 색채, 옥외 광고물, 공공시설 등)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안이다.

경관계획의 내용에는 경관계획의 기본 방향 및 목표,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경관 형성의 전망 및 대책, 경관지구,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 경관관리 행정 체계 및 실천 방안,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한국경관협의회, 2008: 45-48).

조경 분야에서는 경관계획의 과정을 크게 조사·평가, 구상·계획 과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이명우, 2011: 17-24), 다시 조사·평가 단계에서는 사전 검토와 환경분석, 구상·계획 단계에서는 기본 구상과 기본 계획으로 구분하고 있다(Figure 1 참조).

사전 검토 단계는 대규모의 광역적 개발계획 대한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전 조사·평가하는 단계로 사전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사업 예비 타당성 검토를 내용으로 한다. 과거 일반적인 조경 분야의 경관계획 영역에서 다루지 않았으나, 최근 광역 단위의 개발과 관광지 조성 등에 있어 살펴봐야 할 주요 단계로 인식되고 있다.

환경분석 단계는 개발대상지 내·외부에 있는 생태 서식지를 포함한 자연환경, 인간의 행태분석을 포함한 인문환경,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용자들의 시각 환경분석에서 나타나는 잠재력과 제한 요소 등을 토대로 종합분석을 다룬다. 이 단계에서 도출되는 경관계획의 논리성과 객관성의 수준은 대상지 개발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의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조경 및 경관계획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접근해야 할 단계이다.

기본 구상 단계에서는 앞의 조사·평가 단계에서 분석된 합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대지에 도입되는 인원과 건물·시설물 등의 양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요 추정 프로그래밍 단계를 거쳐서 도출된 최적의 기본 구상안은 환경을 개발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이 받는 충격과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기본 계획 단계에서는 기본 구상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프로그램 위에 인간이 사용할 세부 공간, 시설, 동선, 도로 및 주차장 등이 계획되며, 이때 결정되는 전통 생태문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저영향 개발 기법은 친환경적 보전 및 관리가 가능한 경관계획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V. 기독교 세계관적 경관해석

‘경관’이란 인간 의지대로 디자인하고 개발함으로써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속성이며 인간 역시 자연의 산물에 불과한 것인가? 앞장에서 분석한 결과, 인간과 자연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경관을 해석하던 과거의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의 상호 연관성에 초점을 두어 재해석하고 평가하며 개발해 나가는 큰 흐름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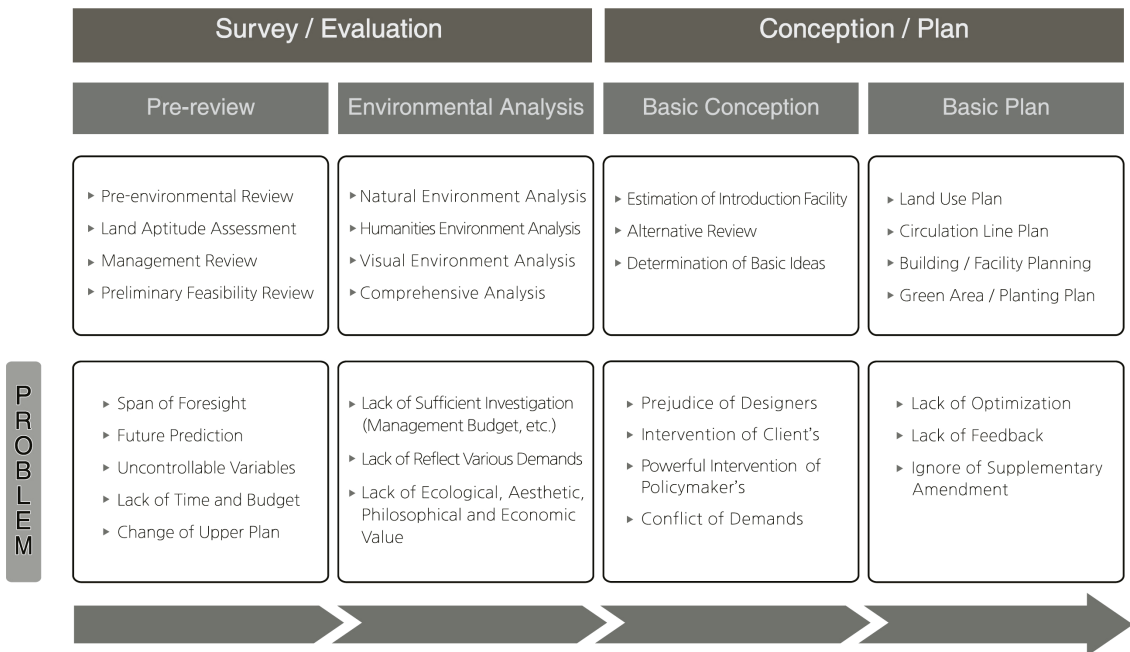


Figure 1. Stage process of landscape planning

물론 이와 같은 관점은 인간과 자연의 운명론적인 샤머니즘이나 애니미즘과 같은 종교적 주술적인 차원이 아니다. 르네상스 이후 경관의 형태에 관한 인식 및 경관 가치를 인간 중심적 견해를 바탕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서구 조경가나 건축, 지리, 도시계획가 사이에서 주로 연구된 문제는 이러한 물리적 공간계획가들이 지향하는 개발 방향이 다분히 진화론적 기본가설(basic-presupposition)에 근거를 두고 학적 체계를 수립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인간의 개발 활동과 아울러 사회 체제가 갈수록 다양화되며, 기존 경관 역시 공간 분화 또는 파편화되어감으로써 진화론처럼 경관이 진화되어 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경관해석의 새로운 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물리적 공간계획가들에 의해 오히려 지구 경관은 더욱 황폐해질 우려가 있으며, 인간 역시 파멸할 위기에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대체할 성경적 틀은 무엇인가?

첫째, 경관은 창조주에 의해 창조된 것이며(창 1:1), 창조주에 의해 소멸될 수도 있다(벧후 3:12). 따라서 경관은 물리적 작용이나 생물학적 작용이나 인간 활동에 의해 변화될 수는 있지만 그 변화 자체를 진보 또는 진화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성경은 바벨탑을 쌓는 인간 행위나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화, 상업주의, 자본주의 등의 발달로 인한 부패를 죄악으로 여긴다(계 18:1-24, 창 13:10-13, 창 19:13).

둘째, 경관해석의 중심을 인간의 관점에 둘 때 인간 중심의 가치가 결국 경관의 가치를 규정하게 된다. 따라서 경관 고유의 객관적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며 과학 언어 게임보다 인간활동의 경제적 가치가 경관 가치평가의 기준이 될 우려가 있다. 동시에 자주 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가치에 기준을 두고 자연을 격리할 경우, 변화 속도가 느린 경관의 회복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위험 부담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인간이 보는 관점이 아닌 창조주의 관점에서 보기에 좋은(창 1:4, 창 1:10, 창 1:12, 창 1:18, 창 1:21, 창 1:25) 경관 그 자체의 관점에서 가치를 논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가치가 될 수 있다. 우주 만물, 그야말로 자연 그 자체의 원초적 경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다면 인간의 존재가 있기 전에 피조된 우주 만물의 가치 역시 객관화시켜야 타당하다.

셋째, 하나님은 피조만물을 창조하신 후 에덴동산에 아담(남)과 이브(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 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마 16:26, 눅 9:25 참조)”,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눅 12:7)”,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례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고전 3:21-23)”라는 말씀을 상고해 볼 때, 하나님은 우주 만물 자체의 가

치보다 한 인간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심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상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존재하며, 부활한 후 그 모습이 영광스러운 형체(고전 15:42, 44)로 변화될 인간의 가치는 분명 현상의 피조 만물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 새 피조물의 실체로서(고후 5:17-18)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가치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만한(고전 6:20) 귀한 가치이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줄 수 있었다(요 3:16). 그리고 그만큼 귀하기에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베풀어지며(눅 15:7), 전도자의 발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길(롬 10:15)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창 11:1-9)이라는 점을 볼 때, 자연경관 자체는 선한 것이나 인간 중심의 지나친 경관 개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인간과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녀가 결혼해 종족을 번성시키며 자연을 경작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그 자체가 축복이지만(창 2:18), 하나님의 법도를 빗나간 자연의 이용, 예컨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 먹는 일이나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 중심의 도시나 문화를 이룩하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측면에서 경관을 재평가해야 한다.

VI. 결론

지금까지 경관의 해석은 다분히 인간 중심의 진화론적 기본 가설에 바탕을 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중심의 경관해석 틀을 제시했다. 경관이란 그 자체가 피조된 우주 만물로서의 실체이며, 인간 역시 피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주 만물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서 파악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가치 역시 ‘살아 있는 영’, ‘살아 있는 존재’(창 3:20, 고전 15:45)로서 육체를 가진 인간과 살려 주는 영, 거듭난 존재로서의 인간(고전 16:25)의 가치가 다름을 분명히 구분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서구 철학자들이 논한 인간과 자연, 몸과 마음, 하늘과 땅,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등 이원론적 철학적 토대에 경관 자체를 평가하는 극단적 논리는 비성경적 이론으로 보아야 한다. 동시에 우주 만물 또한 현상의 세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계시되어 있는 내세에 대한 모형으로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진화론의 기본 가설을 근거로 현상의 우주 경관이 계속 진보하고 발전할 것으로 주장했던 기존의 경관해석 기준만으로 인간 중심적 경관을 평가하는 것 역시 비성경적·비과학적이라고 본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현상학적 경관해석이나 노장사상 등 동양에서 그동안 파악한 인간과 자연의 상호연관성 속에서 경관의 실체를 파악해 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인간의 심리적 내면의 가치에 비중을 두고 인간 소유주를 논

한 관점이나 우주의 질서를 파악하고 인간 존재 구조와 우주 구조와 관련해 환경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던 일면에는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객관적 실체의 가치를 간과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인간 세계에 대한 ‘산 존재(a living soul)’로서 인간의 현상학적 해석 이상을 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살려 주는 영(a quickening spirit)’으로서 인간이 우주와 자연을 파악하고 현상 세계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부활한 인간의 가치와 천상 세계의 모형으로서 현상 세계의 경관의 가치를 논하는 것이 성경적 해석이라 볼 수 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늘의 모형과 땅의 모형이 일치될 원하신다(눅 11:2).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진화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틀에서 탈피해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 지구와 자연, 지구와 우주 경관을 해석하는 새로운 틀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눈은 거둬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영적인 것이기에(눅 10:21-22) 거듭남의 지속적인 역사와 더불어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경관해석의 기본적 틀을 계속 연구 보완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날 때 인간은 만물 자연 파괴자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 된 교회가 주체가 되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엡 1:23)한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는다⁷.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이 지구상에 경관을 경작하며 잘 다스리고 에덴의 염원을 지상에 두고자 하는 것이 정원일 것으로 생각된다. 정원은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낙원인 만큼 조경 분야에서 가든을 만드는 것은 성경적 유토피아의 구현으로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판단된다. 천국의 그림자 지상낙원은 인생의 궁극적 목표이며 인류의 낙원으로서⁸, 못 생명체를 포함한 자연과 인간이 어울려 사는 성경적 유토피아(사 11:6-8, 사 65:25)⁹를 실현하기 위해 땅을 경작해 나가는 크리스천 조경가가 되는 것은 경관해석의 성경적 틀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성경적 틀에서 경관을 해석하고 평가하고 디자인해 나가는 기법은 차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동시에 성경적 이상을 실현할 정원 조성 기법 역시 차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7) 우주란 자의면에서 볼 때 ‘(집 먼)’은 가옥의 상개를 표시하며, 이에 존재의 장소를 표시하는 ‘于(여조사 우)’를 결합해 공간적 세계를 의미한다. 또한 모든 동작의 내력을 표시하는 ‘由(말미암을 유)’를 결합해 시간적 세계를 의미한다.

8) 조선의 대표적인 유학자 퇴계 이황의 경우 도산서원을 세워 후진을 양성하면서 서원 안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 즐겼다. 그는 ‘절우사’라고 이름 붙인 언덕에 직접 매화, 소나무, 국화, 대나무를 심고 이를 즐겼다. 또한 고산 윤선도는 <오우가>에서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을 다섯 친구라 하며 즐겼다.

9)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떼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사 11:6-8)”,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사 65:25).”

참 고 문 헌

- 김농오 (2001). **경관에 대한 인식의 역사적 변천과 조경가의 활동**. 목포대 조경학회.
- [Kim, N. O. (2001). *The Historical Vicissitudes of the Perception of Landscape and the Activities of Landscap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Landscape Society.]
- 배정환 (2004). **현대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서울: 도서출판 조경.
- [Bae, J. H.(2004) *Theories and Issues of Modern Landscape Design*. Seoul: Book publishing landscaping.]
- 성서위원회 (2005). **성경**.
- [Biblical Commission (2005) *The Bible*.]
- 신익순 (2000). **조경기본법제정과 관련법규의 정비 방향**. 한국조경학회지, 29(5), 37-47.
- [Shin, I. S. (2000). The direction of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Landscape and the readjustment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29(5), 37-47.]
- 이명우 등 (2011). **조경계획**. 서울: 기문당.
- [Lee, M. W. et al (2011). *Landscape Planning*. Seoul: Gimundang.]
- 임승빈 (1988). **경관분석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6(1), 43-51.
- [Lim, S. B. (1988). A Study on the Method of Landscape Analysis and Evaluatio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16(1), 43-51.]
- 임승빈·주신하(2001). **조경계획**. 서울: 보문당.
- [Lim Seung-bin and Ju Shin-ha (2001). *Landscape Planning*. Seoul: Bomundang]
- 임승빈 (2003). **경관분석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Lim Seung-bin (2018). *Landscape Analysi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shing Culture Center.]
- 조정송 외 (2006). **조경·미학·디자인**. 서울: 도서출판 조경.
- [Jo, J. S. etc (2006). *Landscape, Aesthetics and Design*. Seoul: Book publishing landscaping.]
- 최기수 (1983). **조경학개론**. 서울: 신학사.

[Choi, K. S. (1983). *An Introduction to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Shinhaksa]

황기원 (2011). **경관의 해석 그 아름다움의 앞**.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Hwang, K. W. (2011). *The Interpretation of the Landscape and the Knowledge of Its Beauty*.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Sauer, C. (1963). *The Morphology of Landscape, Land and Life*,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Eckbo, G. (1969). *Landscape we see*. New York: McGraw-HILL BOOK CO.

경관해석의 성경적 틀

Biblical Framework for Landscape Interpretation

김 농 오 (국립목포대학교 조경학과)

이 웅 규 (백석대학교 관광학부 관광경영학과)

이 창 훈 (국립목포대학교 조경학과)(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경관해석에서 현상학적 접근이나 노장사상은 과거 동양에서 주로 인식해 온 인간 소우주적 개념이다. 이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된 실체로 파악해 온 종래의 기계론적 경관해석보다도 훨씬 인간 중심적인 경관해석이라 볼 수 있다.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자연을 분리해서 생각해 온 종래의 이원론적 철학보다는 훨씬 성경적 해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인간 중심적 경관해석에서는 인간 창조 이전에도 보기에 좋았던 자연경관 자체의 경관의 가치를 간과하기 쉽다. 이처럼 살아 있는 생명체(영, 靈)로서 인간이 인식할 수 없거나, 잘못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 과정에서 경관해석의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성경적 경관해석의 기본적 틀에 있어 '살리는 영'으로서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만물의 실체와 천상 천국의 모형으로서 지상 세계에 대한 가치를 논함을 주장했다.

주제어: 기독교적 세계관, 경관계획, 경관인식, 경관평가, 진화론